

百濟의 文書行政과 木簡

The Administrative Affairs by Wooden Documents in Paekche Kingdom

| | |
|--------------------|--|
| 저자 (Authors) | 尹善泰 Yoon Seon-tae |
| 출처 (Source) | 한국고대사연구 48 , 2007.12, 303-334 (32 pages)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48 , 2007.12, 303-334 (32 pages) |
| 발행처 (Publisher) | 한국고대사학회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
| URL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934039 |
| APA Style | 尹善泰 (2007). 百濟의 文書行政과 木簡. 한국고대사연구, 48, 303-334. |
| 이용정보 (Accessed) |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3:54 (KST)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百濟의 文書行政과 木簡*

尹善泰**

- I. 머리말
- II. 문서의 생산
- III. 문서의 보관
- IV. 문서의 폐기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백제의 문서목간과 문서표지용 꼬리표목간을 분석하여, 백제의 문서 생산, 보관, 폐기방식 등을 검토하였다. 우선 <능산리 사면목간>을 통해, 당시 백제에서 최종 장부를 정리하기에 앞서 사면목간을 중간 정리용 메모장으로 사용하였고, 메모의 기능이 다한 뒤, 기존의 목서를 깎아내고 또 다른 내용의 메모장으로 여러 차례 재활용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관청의 결산보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出納에 관한 일상적인 메모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데, 이 경우 당시에는 종이가

* 이 논문은 200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6-332-A00007).

**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대표논저 : 2005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56 ; 2004 『부여 능산리 출토 백제목간의 재검토』 『동국사학』40 ; 2003 『웅진·사비기 백제의 척도제-사비도성의 공간구성과 관련하여-』 『고대 동아시아와 백제』, 서경.

귀했기 때문에 목간이 가장 효율적인 서사재료로 애용되었다.

이어 관북리 목간을 활용하여 문서의 정리와 보관 방법을 검토하였다. 관청에서는 방대한 양의 문서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들을 분류·정리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卷軸을 이용해 말아놓는 두루마리 종이문서의 경우, 그 문서의 명칭을 권축 자체에 기록하여 標識로 삼았는데, 크게 題簽軸과 木簽軸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백제에서는 이보다 더욱 세련된 꼬리표목간을 문서의 표지로 권축에 매단 것도 확인된다. <관북리 285호목간>은 중국 漢代의 표지용 목간인 楊과 형태가 유사하고, ‘兵与記’라는 장부명칭이 목서되어 있다는 점에서, ‘兵与記’라는 장부의 표지로 기능한 꼬리표였다고 생각된다. ‘兵与記’는 두루마리(卷子本) 형태의 권축문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문서의 보존과 폐기방식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문서목간의 가장 손쉬운 폐기방식으로는 태우거나 목간의 목서를 削刀로 깎아내는 방법이 있다. 백제목간에서는 이 외에도 목간 자체를 삭도로 두 쪽 혹은 세 쪽 이상으로 절단하는 폐기방식이 확인된다. 이는 고대일본의 郡符木簡에서도 똑같이 확인된다. 특히 <관북리 283호목간>처럼 목간의 상단부를 조금씩 차례차례 조각내 부러뜨리는,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고대일본의 목간 廢棄行程과 동일한 목간이 발굴되기도 하였다.

이는 백제멸망 후 백제 관인층의 상당수가 일본으로 망명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으로 백제의 문서생산과 폐기방식 등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결국 백제에는 문서의 오용을 막기 위해 문서목간을 일정한 방식으로 폐기하는 관례가 관인사회 내에 존재하였고, 이것이 양국 사이에 동일한 정형화된 폐기행정이 발생한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목간, 문서목간, 문서표지용목간, 문서의 생산, 보관, 폐기.

I. 머리말

현재 백제사 연구는 구체성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다. 이는 백제사를 구성하고 설명할 史料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백

제 당시에 작성된 ‘일차자료’는 두말할 것도 없고, 『三國史記』의 백제본 기에도 대외교류관계를 전하는 중국측 자료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龍鳳金銅大香爐의 발굴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부여 ‘陵山里寺址’에서 30점이 넘는 소중한 백제목간이 출토되었다. 백제의 일차자료에 목말라있던 고대사학계로는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도 같은 희소식이였다. 현재 백제목간은 모두 합해 70점 이상으로 집계되지만,¹⁾ 최근 부여권의 개발로 백제유적에 대한 발굴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목간이 출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7년 5월에도 충청문화재연구원 이 쌍복리 부여여중 앞 현대들 백제유적에서 목간 14점(묵서 7점)을 발굴하였다.²⁾

고대사회에서 문자의 최대 사용자는 국가였다. 이로 인해 현재 발굴되는 고대목간의 거의 대부분은 행정문서나 장부 제작에 기초가 되었던 고대국가의 다양한 기록물들이다. 따라서 이 목간들의 묵서는 그동안 한국 고대사 연구의 불모지였던 문서행정이나 고대율령을 이해할 수 있는 일급의 자료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서행정’은 국가의 政務가 문서로 처리되는 국가행정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문서행정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료의 업무 분담과 그에 따른 각종 문서와 장부의 생산은 법령에 의해 통제되었다. 즉 고대국가의 공문서는 관료가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생산·보존·폐기되며, 이 과정 자체가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통제된다. 따라서 고대의 문서행정은 율령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백제에서도 관청 상호간에 ‘문서’로 업무를 처리하고, 관청의 여러

-
- 1) 2006년 12월까지 백제목간의 출토현황에 대해서는 윤선태, 2007 「목간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고대사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p.469 <표1>을 참조바람.
 - 2) 이관섭·윤선태, 2007 「부여 쌍복리 현대들 출토 백제목간」 『신출토 목간의 향연』(한국목간학회 제2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업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장부’ 등이 생산되었다. 이는 백제목간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백제목간의 목서에는 官人의 간단한 글자 연습에서부터 국가의 복잡한 帳簿類에 이르기까지, 사비시기에 작성된 각종의 국가기록물이 모두 확인된다.

문서행정과 관련된 목간으로는 크게 문서목간과 문서표지용 꼬리표 목간을 들 수 있다. 우선 문서목간은 백제의 행정문서나 장부 등으로 사용되었던 목간을 말한다.³⁾ 이들 문서목간에 기록된 내용들은 단편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백제 當代의 자료라는 점에서 해당시기 백제의 중앙행정과 그 업무처리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최상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꼬리표목간은 물품에 매다는 ‘꼬리표’로 사용되었던 목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창고물품의 정리나 각 지방의 세금에 매달아 세금 납부자를 명시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제작되었다. 그런데 관북리목간 중에는 지방에서 중앙으로 문서를 보고할 때나, 각 관청에서 문서를 정리·보관할 때, 두루마리 권축에 문서나 장부의 이름을 기록해 ‘標識’로 사용했던 특수한 문서표지용 꼬리표목간도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백제목간을 분석하여, 문서의 생산, 보관, 폐기행정 등을 이해해보려고 한다.

우선 2장에서는 백제의 문서 생산방식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帳簿 정리를 위해 중간 메모장으로 활용했던 <능산리 사면목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⁴⁾ 이 목간은 최근 적외선사진이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3면의 첫 글자가 ‘食’의 일부 획이라는 매우 의미있는 판독이 이루어져,⁵⁾ 백제의 문서생산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3) 일반적으로 古文書學에서는 受發關係가 명확한 것만을 ‘문서’라고 정의하지만 (中村裕一, 1991 『唐代制勅研究』, 汲古書院 ; 1991 『唐代官文書研究』, 中文出版社 ; 1996 『唐代公文書研究』, 汲古書院), 필자는 관청의 장부류 역시 광의의 의미에서 문서의 범주 속에 포함시켜 다루려 한다.

4) 윤선태, 2006 「사비도성과 嶠夷」, 『동아고고논단』2, pp.244~248.

5) 이병호, 2007 「부여 능산리 출토 목간의 성격」,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되었다.

이어 3장에서는 문서의 정리와 보관 방법을 검토하였다. 이에는 앞서 언급한 관북리 문서표지용 꼬리표목간을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필자는 애초 이 목간이 다면목간을 편철하고, 그에 매단 표지용 목간이 아닌가 추론한 적이 있다.⁶⁾ 그러나 이후 종이 두루마리 권축문서에도 이러한 형태의 표지용 꼬리표목간이 부착되었던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확인하고,⁷⁾ 이 목간을 백제의 권축문서에 매달려 있었던 표지용 목간이 아닌가 새롭게 정의한 바 있다.⁸⁾ 그런데 최근 이 목간의 목서판독과 용도에 대해 필자와 다른 견해가 제기되었다.⁹⁾ 3장에서는 이러한 지적들에 답하면서 필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문서의 폐기방식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관북리와 궁남지의 백제목간에 대해서는 廢棄行程을 조사한 연구가 있지만,¹⁰⁾ 여전히 목간의 인위적인 폐기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목간의 폐기상태도 목간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諸賢의 叱正을 바란다.

6) 윤선태, 2006 앞의 논문, p.252.

7) 劉國鈞, 1962 『中國古代書籍制度史話』, 『光明日報』2월 17일~24일 ; 劉國鈞(김재훈 역), 2004 『中國古代 書籍制度의 發展』, 『民族文化』27, 민족문화추진회, pp.326~335.

高島英之, 2004 『題簽軸』, 『文字と古代日本』1, 吉川弘文館, pp.344~346.

8) 尹善泰, 2007b 『木簡からみた百濟泗泚都城の内と外』, 『韓國出土木簡の世界』, 雄山閣, pp.90~94.

9) 이용현, 2007 『목간』, 『백제의 문화와 생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pp.267~268.

이경섭, 2007 『함안 성산산성 출토 題簽軸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서표지목간』, 『역사와 현실』65, pp.210~212.

10) 李鎔賢, 1999 『부여 궁남지 출토 목간의 연대와 성격』, 『궁남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p.342.

金在弘, 2001 『부여 궁남지유적 출토 목간과 그 의의』, 『궁남지Ⅱ』,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pp.432~433

II. 문서의 생산

3세기 이래 백제에서는 낙랑·대방군 세력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중국문화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국가체제를 확립해가고 있었다. 백제에서는 450년에 南朝의 宋에 점을 치는 책인 『易林』과 式占을 요구한 사실이 『宋書』에 기록되어 있고,¹¹⁾ 또 이보다 후대지만 『周書』에도 백제인이 陰陽五行, 醫藥, 그리고 占卜 등에 능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보아 이미 5세기대에 백제의 識字層들은 단순한 한자학 습이나 유·불의 경전이해를 뛰어넘어, 도교, 의약, 점술 등 중국의 보다 다양한 문화를 섭렵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日本書紀』에 백제에서 509년에 任那로 이주한 백제 유망민들을 括出하여 다시 ‘附貫’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 기록이 주목된다.¹²⁾ 이는 이미 5세기말에 백제에서 ‘戶籍’을 제작하였을 가능성을 말해준다.¹³⁾ 앞서 거론한 한성기 후반 백제사회의 총체적인 문화능력으로 볼 때, 이 기사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웅진시기에는 백제의 문서행정이 더욱 발달하였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6세기 전반에 활동한 고대일본의 백제계 도래인인 王辰爾 일족들이다. 이들은 일본에서 外交文書의 해독이나, ‘船賦’나 ‘丁籍’ 등의 일을 부여받았고, 일본의 기존 文士層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업무처리로 인해 극찬을 받았다.¹⁴⁾

이로 볼 때 한성시기 이래 백제에는 문서행정을 담당했던 관료층이

11) 평양의 석암리 201호분과 205호분(王盱墓)에서 출토된 ‘식점’을 치는 도구인 낙랑군시대의 ‘式盤’에 주목할 때, 4~5세기 백제의 중국문화 이해과정에도 고구려처럼 낙랑·대방군과의 교류나 백제로 남하한 낙랑·대방계의 식자층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12) 『日本書紀』 권17, 繼體天皇 3년 2월

13) 김영심, 2005 『백제 5방제 하의 수취체제』 『역사학보』185, pp.14~21.

14) 『日本書紀』 권19, 欽明天皇 14년 7월 및 30년 4월, 같은 책, 권20 敏達天皇 원년 및 3년 10월

상당히 두터웠다고 생각된다. 『隋書』百濟傳에 백제 관인들이 “행정실 무에 능숙하다(能吏事)”고 특기되었던 것도 한성기 이래 이러한 역사적 蘊蓄에 기초한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부터 검토할 백제의 마지막 도성이었던 충남 부여의 여러 유적에서 발굴된 사비시기 백제의 목간자료들은 이 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백제 사비도성의 西部戶籍에서 발췌된 것으로 추정되는 <궁남지 315 호목간>으로 볼 때,¹⁵⁾ 사비시기 백제에서는 대민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戶籍 등과 같은 매우 방대한 장부를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양의 문서는 종이두루마리 권축문서의 형태로 정리, 보존되었고, 목간에 서사되지는 않았다. 紙木併用期에 목간은 일반적으로 메모나 중간정리, 아니면 발췌용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세금을 수납하거나, 관청물품의 지출상황을 메모 또는 정리하는, 出納帳簿 작성의 기초자료로 주로 사용되었다. <능산리 사면목간>에 기록된 ‘支藥兒食米記’가 이러한 중간정리용 메모의 좋은 예이다. 陵山里寺址에 대한 8차 조사에서 발굴된 이 목간은 공들여 다듬은, 단면 사각형의 막대 형태를 하고 있다. 아쉽게도 하단이 파손되었지만, 사비 천도 직후의 문서행정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목간의 현존 길이는 44cm이고 각 면의 폭은 2cm 정도다.

기왕에 출토된 한국고대의 다른 다면목간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면목간의 목서도 그 내용으로 볼 때 한문을 쓰는 서사방향과 똑같이, 위에서 아래로, 다시 우에서 좌로 써내려갔다. 즉 목간의 어떤 한 면을 제1면으로 정했다면, 제2면은 제1면의 좌측면이 되는 식으로 좌측면 방향으로 내용이 계속 이어진다. 이 목간의 목서에 대한 필자의 판독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⁶⁾

15) 윤선태, 2007b 앞의 논문, pp.100~101.

16) 「능산 8차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에는 필자 판독안의 2면과 3면이 1면과 2면으로 잘못 소개되어 있고, 나머지 두 면은 아예 판독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능산리 사면목간>

- (1면) 支藥兒食米記 初日食四斗 二日食米四斗小升一 三日食米四斗 ×
- (2면) 五日食米三斗大升 六日食三斗大二 七日食三斗大升二 九日食米四斗大 ×
- (3면) △道使△次如逢小吏猪耳其身者如黑也 道使復△彈耶方 ^{牟氏}牟△ 耶 ×
- (4면) × 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



<그림 1> 능산리 사면목간

종래 이 목간은 道使에게 食米를 지급한 사실을 기록한 帳簿로 해석되었다.¹⁷⁾ 그러나 필자의 판독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 목간은 내용상 ‘제1~2면’, ‘제3면’, ‘제4면’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해야 하며, 이 중 ‘제1~2면’은 「支藥兒食米記」로命名해도 좋을 백제 어느 관청의 장부가 분명하고, 또 ‘제3면’은 이외는 성격을 달리하는 또 다른 장부의 기록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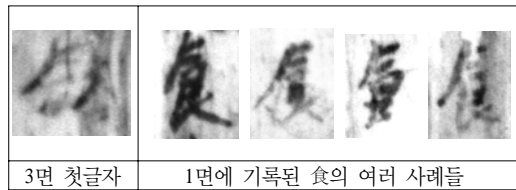
한편 ‘제4면’은 나머지 1~3면과 서사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고, ‘又十二石’이라는 간단한 문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1~3면이 기록된 후 어

17) 近藤浩一, 2004 「扶餘 陵山里 羅城築造 木簡의 研究」, 『百濟研究』39, pp.98~103.

는 시점엔가 이 목간을 폐기할 때, 누군가가 ‘제4면’을 摺書用(글자연습용)으로 재활용한 뒤에 폐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목간 각면의 내용과 서사 상태로 볼 때, 이 목간은 적어도 2차례 이상 재활용된 것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위 필자의 판독문에서 판독불명으로 처리한 제3면의 첫 글자를 새롭게 판독하고, 이를 기초로 목간의 재활용방식을 검토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이 견해에서는 이 제3면 첫 글자에 대해 ‘食’의 상부 획 일부만 남아있는 글자로 판독하고, 이를 통해 “원래 3면에도 [1~2면과 연결되는(필자주)] 食米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지만(1차목간), 그것을 깎아내고 현재와 같은 내용(2차목간)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제기하였다.¹⁸⁾

이 견해는 적외선사진에 기초하여 사면목간 목서에 대한 매우 진전된 판독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경청할 바가 있지만, 제3면 첫 글자의 판독이나 사면목간의 재활용과정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2>로 알 수 있지만, 제3면 첫 글자의 좌변은 분명 ‘食’의 상단부 획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기존의 견해에서는 그 우변에 또 다른 묵흔이 남아있다는 점에 주의하지 않았다.



<그림 2> 능산리사면목간 3면 첫글자와 1면의 ‘食’

이러한 묵흔의 상태로 볼 때, 제3면 첫 글자는 단순히 ‘食’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글자도 ‘食’과 時差를 달리해 같은 자리에 중첩적으로 서

18) 이병호, 2007 앞의 논문, pp.142~143.

사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한편 1면 ‘支’ 앞에도 ‘丿’ 형태의 묵흔이 남아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¹⁹⁾ 이를 부호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削刀로 깎아내고 남은 어떤 글자의 일부 획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필자의 추론이 허락된다면, 이 목간에는 時差를 달리하여, 여러 번 기존 목서를 깎아내고 또 다시 書寫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면목간의 상단부 마구리 부분이 그 아래보다 두께가 훨씬 더 두꺼운 것도, 그 아래 부분에 쓰여 있던 기존 목서를 여러 차례 깎아내었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이 사면목간은 백제에서 최종 장부를 정리하기에 앞서 사면목간을 중간 정리용 메모장으로 사용하였고, 그 메모의 기능이 다한 뒤, 예를 들어 최종 장부에 메모를 옮겨 정리한 뒤, 기존의 목서를 깎아내고 또 다시 다른 내용의 중간 정리용 메모장으로 여러 차례 재활용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런데 문제는 각 서사면의 시차를 정하는 작업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억측일지 모르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를 통해 이를 풀어보고자 한다.

- 첫째, 현존 1면의 목서는 그 이전의 어떤 목서를 깎아내고 書寫되었다.
- 둘째, 현존 1~2면의 목서는 連結되는 기록이며, 현존 1면 서두에 그 帳簿名稱이 기록되어 있다.
- 셋째, 현존 3면은 현존 1~2면과 연결되지 않는 기록이며, 장부의 명칭이 없다.
- 넷째, 3면 첫 글자의 묵흔으로 볼 때, 현존 3면 목서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書寫가 이루어졌다.
- 다섯째, 현존 4면은 서사방향이 다른 면과 반대이고 내용상 글자가 반복되어 첩書로 생각된다.

우선 제4면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목간의 폐기직전 서사행위라고

19) 위의 논문, p.142.

생각된다. 폐기직전에 기존의 목서를 깎아내고 습서용으로 재활용한 사례는 후술하는 <능산리 296호목간>에서도 확인된다.²⁰⁾ 한편 현존 1~2면은 서두에 장부명칭이 있고,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기록은 이 목간을 메모장으로 사용했던 관인의 최후 메모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와는 달리 현존 3면은 장부명칭이 없다는 점에서, 애초 3면의 앞면에 3면 메모의 장부명칭이 있었고, 그 부분이 현존 1~2면의 목서로 인해 깎여져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경우 1면 ‘支’ 앞에 ‘厶’ 형태의 목흔도 현존 3면과 연결되는 목흔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추론에 의거하여 <능산리 사면목간>의 재활용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차) 食米 또는 기타 메모 (근거 : 3면의 첫 글자와 관련된 메모)
- (2차) 道使 등의 메모 (근거 : 현존 3면과 지금은 깎여져 나간 그 앞면의 메모)
- (3차) 支藥兒食米記 (근거 : 현존 1~2면)
- (4차) 習書 후 폐기 (근거 : 현존 4면)

결국 이 사면목간의 최종적인 메모는 현존 1~2면의 支藥兒食米記이고, 현존 3면은 이 지약아식미기 이전에 기록되었던 또 다른 용도의 메모였다고 생각된다. 支藥兒食米記의 기록할 양이 좀 더 있었다면 현존 3면도 깎아내고 서사하였을 것이다.

支藥兒食米記에는 기존의 백제자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支藥兒’와 같은 관청 말단의 使役人을 비롯해, 食米支給制, 大升, 小升의 度量衡制 등 매우 독특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발굴된 백제목간 중에서도 가장 희기적인 출토문자자료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이 목간은 6세기 후반이라는 명확한 폐기연대를 갖고 있고,²¹⁾ 또 장부명칭과 그 정리방식까지도 알려주기 때문에 백제의 문서생산방식을 체계화하는데 매우 유익하다.

20) 윤선태, 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이야기』, 주류성, pp.152~153.

21) 이병호, 2007 앞의 논문, pp.136~140.

우선 ‘支藥兒食米記’가 무슨 뜻인 지부터 해명하여 보자. 고대일본의 『延喜式』에도 ‘嘗藥小兒’,²²⁾ ‘客作兒’,²³⁾ ‘造酒兒’²⁴⁾ 등 接尾語로 ‘兒’가 붙는 국가의 여러 잡무를 수행했던, 최말단의 사역인이 확인된다. 백제의 ‘지약아’는 그 이름으로 볼 때, ‘약재를 지급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역인’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지약아’는 식미를 받은 사역인이라고 생각되며, 『支藥兒食米記』는 ‘지약아에게 준 식미의 기록(장부)’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支藥兒食米記』는 日別로 의도적으로 띄어쓰기하여 단락을 구분하였다. 제1면의 하단에 ‘三日’이라는 기록이 있고, 제2면에서 ‘五日’, ‘六日’, ‘七日’ 기록이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1면 하단의 파손부분에 ‘四日’에 관한 기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론이 허락된다면, 목간의 원래 길이는 60~70cm 정도였고, 현재 그 2/3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월(月)’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 목간을 기초자료로 하여 그 달치의 전체 장부가 새롭게 작성되었다고 추정된다. 이 사면목간이 여러 차례 재활용되고, 최후에 습서용으로 폐기된 것만 봐도 이 목간의 목서는 최종 장부라기보다 그러한 최종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 준비한 중간단계의 메모장이었다고 생각된다.²⁵⁾

한편 다음 <능산리 304호목간>도 백제의 문서생산방식을 이해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목간은 하단부가 파손되어 상부 일부만이 남아있다. 두께는 0.3cm 정도로 얇다. 이 목간의 원형은 세장형의 기본형목간일 수도 있지만, 이 목간의 용도가 후술하듯이 석탄일 의례참가 승려명단 중의 하나이고, 이 목간의 裏面 목서가 서사방향이 앞면과 반대라는 점에서 볼 때, 편철용의 구멍이 하단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목서내용을 보면 앞면에는 ‘四月七日’이라는 날짜, ‘寶憲寺’라는 사찰

22) 『延喜式』 卷5, 神祇5 齋宮.

23) 위의 책, 卷6, 神祇6 齋院司.

24) 위의 책, 卷7, 神祇7 踐祚大嘗祭.

25) <능산리 사면목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분석은 윤선태, 2007b 앞의 논문, pp.83~90을 참조바람.

명, 그리고 그 소속 승려들로 생각되는 ‘智眞’, ‘乘□’ 등의 인명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뒷면에는 ‘소금(鹽)’과 그 수량 ‘二石’을 ‘보냈다(送)’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²⁶⁾ 한편 이 목간의 뒷면은 앞면과 글자의 書寫方向이 서로 반대이며, 또 異筆이라고 생각된다(그림3 참조). 아래는 그 판독문이다.

<능산리 304호목간>

| | | |
|------------|----|---|
| · 四月七日 寶憇寺 | 智眞 | x |
| | 乘□ | |
| · x □送鹽二石 | | |

이 목간은 4월 7일이라는 날짜로 볼 때, 석가탄신일 의례에 참석하러 온 보희사 승려들을 정리한 명단 중의 하나라고 추정된다.²⁷⁾ 그 이면의 목서는 필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앞면의 목서와 일정한 관련은 있지만 다른 사람이 쓴 追記였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석탄일 의례 후 참석한 승려들에게(또는 소속사찰인 보희사에) 답례로 보낸 소금 2석을 기록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장차의 출납장부 정리를 위해 앞면과 연결시킨 추가 메모라고 생각된다. 이때 승려들의 출석명단을 정리하는 것, 참석

26)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이 목간 뒷면에 기록된 계량단위인 石이 가로획 一을 생략한 채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近藤浩一, 앞의 논문, p.88 주11). ‘함안성 산산성목간’을 비롯해 신라의 고문서, 목간, 금석문 등에는 모두 돌 石과 계량단위의 石을 구별해, 돌 石은 온전히 쓰지만 계량단위의 石은 가로획 一을 생략한 채로 표기하였다. 이는 고려, 조선에도 계승되었다(河日植, 1996 『昌寧仁陽寺碑文의 研究』, 『韓國史研究』95, pp.27~28 ; 尹善泰, 1999 『咸安 城山山城出土 新羅木簡의 用途』, 『震檀學報』88, p.18) 그런데 위 목간의 二石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추후 백제 문자자료에서 동일한 사례들이 증가한다면 더욱 명확해지겠지만, 이러한 표기법의 淵源이 백제로 소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는 신라의 문자생활에 끼친 백제의 영향력을 말해주는 것이다.

27) 이 목간이 석탄일 의례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은 東野治之, 2001 『木簡으로 본 韓日 古代文化』(충남대 백제학교육연구단 제5회 해외전문가 초청강좌 발표요지문), p.2를 참조바람.



〈그림 3〉 능산리 304호목간

승려에게 답례품을 보내는 등 일련의 의례 진행과정이 목간을 이용해 문서로 처리되었다.

이처럼 업무가 分掌되고, 그 절차가 문서로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이 목간이 능산리사지와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승려들의 일삼씨라기보다는 新羅의 寺院成典과 같은 관인기구의 지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 든다.²⁸⁾ 아마도 이 관인은 전체 출석명단의 이면에 기록된 소금 지급의 양을 합산해서 일차 중간 정리를 거쳐, 최종 소금출납장부를

완성하였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청의 결산보고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出納에 관한 일상적인 메모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데, 이 경우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목간이 가장 효율적인 서사재료로 애용되었다. 한편 이러한 목간에 메모된 기록을 중간정리하고 또 최종 종이문서에 종합하기 위해 목간에 특별히 日附를 기록해 날짜별로 정리하였다.

Ⅲ. 문서의 보관

관청에서는 방대한 양의 문서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들을 분류·정리하여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각 문서의 명칭을 기록한 ‘標識’를 문서마다 일일이 붙여 文書識別的

28) 윤선태, 2007 앞의 책, p.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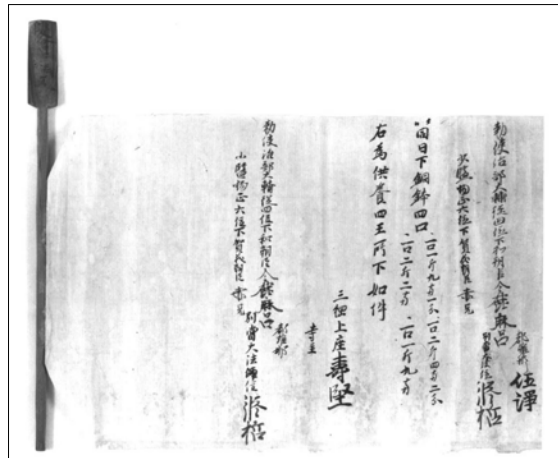
수단으로 삼았다.

卷軸에 맡아놓는 종이두루마리문서(이하 권축문서로 약칭함)의 경우, 문서의 명칭을 권축 자체에 기록하여 문서의 표지로 삼거나, 별도의 표지용 꼬리표를 만들어 권축에 매달아놓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물론 전자는 다시 題簽軸과 木簽軸으로 세분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보아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題簽軸은 마치 네모난 숟가락 모양처럼 권축의 頭部를 넓적하게 만들고, 이 부분이 종이두루마리 위로 삐죽이 나오도록 권축의 길이를 좀 더 길게 만든 특수한 권축을 말한다. 이 권축의 넓적한 두부에 해당 문서의 명칭을 적어 표지로 삼았다(그림4 참조). 종이문서를 권축에 말아도, 권축 두부에 쓴 문서명칭은 그대로 드러나 표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한편 木簽軸은 굽은 권축을 사용하여 그 권축의 마구리 부분에 직접 문서의 제목을 적었던 권축을 말한다.

이들 권축의 모양과 표지 위치로 보아 <제침축>은 권축 두부가 위로 오도록 향아리나 상자 등에 수직으로 꽂아놓는 방식으로, <목침축>은 권축 마구리가 보여

야 함으로, 선반에 수평으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정리·보관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제침축>은 관료가 항상 가까이 두고 수시로 빼서 보는 각 관청의 일상용 문서에 주로 사용되었고, <목침축>은 지방에서 중앙



〈그림 4〉 고대일본의 제침축

도성으로 보고한 상신문서나 장기보관용 문서에 사용되었다.²⁹⁾



〈그림 5〉 관북리 285호목간과 그 적외선사진

한편 백제의 경우에는 <제침축>이나 <목침축>보다 더욱 세련된, 별도의 표지용 꼬리표를 만들어 권축에 매달아놓는 문서정리법이 확인된다. 백제목간은 출토점수가 적어 문서의 생산과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복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사비시기 백제의 왕궁으로 추정되는 부여 관북리유적에서 출토된 <관북리 285호목간> 하나만 보더라도, 당시 백제의 문서행정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 <285호목간>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충남대 발굴조사 때 남겨둔 연지 내의 발굴용 독을 해체조사하면서 가장 늦게 발굴한 것이다.³⁰⁾ 이때 백제 陶硯도 함께 공반 출토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연지 근방에 이 벼루와 목간을 사용했던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29) 日本國立歷史民俗博物館, 2002 『文字のある風景－金印から正倉院文書まで』, 朝日新聞社, pp.67~68.

3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3年報』, pp.35~36에 이 목간의 사진이 <도판 16>으로 게재되어 있어 이때 발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는 이 목간이 발굴된 구체적인 층위는 소개되어 있지 않다.

이 목간은 두께가 2mm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얇고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는데, 아쉽게도 하단부가 파손되었다. 이 목간은 목간 상단 모서리의 모를 죽여 반원형의 弧를 공들여 만들었는데, 형태적 특징과 목서내용을 통해 그 용도를 추정할 수 있다. 아래는 이 목간의 목서에 대한 필자의 판독안이다.

<관북리 285호목간> (12.2×4.2×0.2cm)

(후면) · 中方向□ 十 ×
 □ ×
 (전면) · 二月十一月兵与記 ×

위 판독안의 전면과 후면은 『한국의 고대목간』(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의 분류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러나 목서의 내용으로 볼 때, 원래는 위 판독안의 후면이 전면이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후면의 ‘中方向□’은 大字로 쓰여 있고, 그 아래에 2행의 割註形式으로 細字의 附記가 있는데, 이 細字의 부기가 끝나지 않아 그 뒷면(위 판독안의 전면)으로 이어져 細字로 ‘二月十一月兵与記’가 목서되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兵与記’는 ‘兵器의 分与에 관한 기록(장부)’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十一月’의 판독이 틀리지 않았다면 ‘二月十一月’은 2월에서 11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兵与記’ 장부를 모두 정리해놓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앞서 검토한 능산리 사면목간의 ‘支藥兒食米記’처럼 이 목간에도 장부를 ‘記’로 표현하고 있는 공통점이 확인되며, 백제의 장부 명칭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런데 이 <285호목간>은 상단의 모서리를 깎아서 반원형의 호를 만들었고, 목간 전면의 우상단에는 비록 구멍 한쪽이 파괴되었지만 부찰형 구멍이 확인된다. 아마도 폐기될 때, 목간의 두께가 얇아 묶여 있던 끈에 의해 구멍 한쪽이 파괴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형태는 중국



<그림 6> 楬(1)

漢代에 편철목간의 標識로 사용했던 ‘楬’과 형태가 매우 흡사하다.³¹⁾ 실제로 한대의 楬에도 구멍 한쪽이 파괴된 실물이 발견된 바 있다(<그림 6> 참조). 더욱이 <285호목간>에는 ‘兵与記’라는 문서명칭이 묵서되어 있어서, 그 형태나 묵서내용 등 모든 면에서 중국 한대의 文書標識用 꼬리표목간에 부합된다. 따라서 <285호목간>은 그 용도가 ‘兵与記’ 장부의 표지로 사용된 꼬리표목간이었다고 생각된다.³²⁾

그런데 최근 <285호목간>의 형태와 묵서판독에 의거한 필자의 용도 추정에 대해 반론이 제기되었다. 우선 형태와 관련하여 한대에는 楬의 길이가 10cm 내외인데 비해, <285호목간>은 하단부가 훼손되었는데도 그 길이가 12.2cm나 되기 때문에 문서표지용 목간일 수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³³⁾ 그러나 이 견해는 길이가 무려 21cm나 되는 ‘肩水候官元康四年十二月四時雜簿’가 묵서된 한대의 楬을 모르고 있다(<그림 7> 참조).³⁴⁾

한편 <285호목간>의 파손된 구멍이라는 것이 실제 구멍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꼬리표목간에서 구멍을 한가운데 뚫는 일반적인 형태와 달리, 구멍으로 추정되는 부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구멍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³⁵⁾ 그러나 이 지적은 앞서의 문제제기와 마

31) 편철간은 말아놓으면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楬’에다가 典籍이나 帳簿의 명칭을 쓰고, 楬의 상단에 구멍을 뚫어 편철간에 묶어 그 標識로 기능하도록 했다(大庭脩 編著, 1998 『木簡—古代からのメッセージ』, 大修館書店, pp.40~41).

32) <관북리 285호목간>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은 윤선태, 2007 앞의 책, pp.163~172을 참조바람.

33) 이경섭, 2007 앞의 논문, p.211.

34) 宇野雪村, 1989 『木簡の書』, 同朋舎, <그림12>를 참조바람.

35) 이경섭, 2007 앞의 논문, p.212.



〈그림 7〉 楮(2)

찬가지로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하찰에 구멍을 한가운데 뚫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 목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사례분석과 함께 이 목간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목간 자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함께 병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일본의 하찰에도 특이하게 뚫은 구멍이 있어 주목된다. <그림 8>의 (4)처럼 고대일본에도 하찰의 구멍은 한가운데 뚫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것도 사람의 일이라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3)과 같은 특이한 형식의 하찰구멍이 확인된다. (1)은 목간에 미리 구멍을 뚫지 않고 글씨부터 썼는데, 구멍 뚫을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상단 끝 가장자리에 바짝 붙여 글씨를 써버렸다. 이로 인해 글자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구멍을 한쪽으로 치우쳐 뚫었다. (2)도 동일한 상황이지만, 구멍을 한가운데 뚫기 위해 글자를 훼손한 경우이다. (3)은 글자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중간 가까운 쪽에 구멍을 뚫은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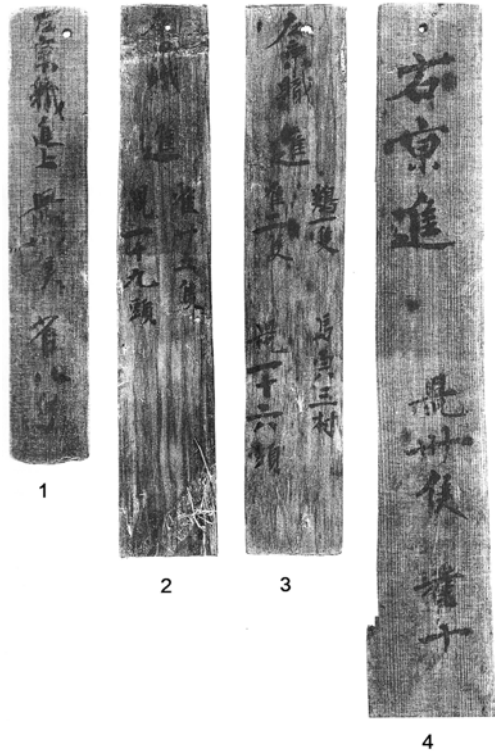
필자가 <관북리 285호목간>을 실제 조사하였을 때, 파손된 가장 안쪽 구멍부분과 그 바깥쪽 부분의 마모 상태는 완전히 달랐다. 안쪽은 가장자리가 매끄럽지만, 바깥쪽은 강제로 찢겨졌다는 느낌이 강했다. 또 필자의 견해와 똑같이 이 부분을 “상단에 작은 구멍이 있었고, 여기에 끈이 묶여 있다가 끈을 당기면서 가장자리까지 끌려 터져 나간 형적이 보인다”고 설명한 연구자가 더 있다.³⁶⁾

36) 이용현, 2007 앞의 논문, p.268.

필자는 구멍을 한가운데 뚫지 못했던 이유를 <관북리 285호목간>의 특수한 제작과정에서 찾고 싶다. 위 <그림 5>의 후면을 보면 ‘中’이 상단 위로 완전히 올라가 서사되었다. 이는 목간의 구멍을 먼저 뚫고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구멍을 뚫었음을 의미한다. ‘中’을 훼손하지 않고 한가운데에 구멍을 뚫을 경우, 이 목간은 두께가 2mm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멍이 너무 바깥쪽 가장자리에 가까워져 파손될 염려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장자리로부터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구멍을 뚫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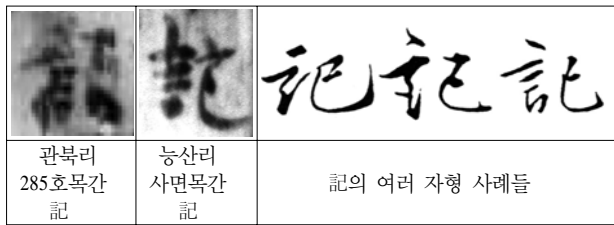
물론 이러한 형태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목간의 목서 판독에 보다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필자도 애초 이 목간의 형태 뿐만 아니라 이 목간의 목서를 ‘兵与記’로 판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문서표지용 꼬리표목간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런데 최근 필자가 ‘記’라고 판독할 글자의 좌측 ‘言’은 확실하지만,



<그림 8> 고대일본의 하찰과 구멍

‘己’로 판독한 우측은 복잡한 목흔으로 말미암아 주저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³⁷⁾ 또 이 ‘記’를 ‘詔’로 판독한 견해도 나왔다.³⁸⁾ 전자는 “記라고 판독한 부분 아래부터” 목간이 파손되었다고 보고, 記라고 판독한 글자 자체의 훼손여부에 대해서는 주의하지 않았다. 이는 후자의 견해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이 글자 우측의 목흔을 복잡하다고 보거나, 詔로 판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글자의 우측 하단부의 시커먼 점(후자는 이 부분을 口로 읽었다)은 실제로는 나무재질이 파여져 나간 흠이다. 흠결도 적외선 사진에서는 목흔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글자는言변과 그 우측 상단의 획만이 판독의 열쇠가 된다.



<그림 9> 관북리 285호목간의 ‘記’ 판독을 위한 비교자료들

<그림 9>의 능산리 사면목간이나 記의 여러 자형 사례로 알 수 있지만, 己의 상단은 필사과정에서 흔히 ‘マ’나 심지어 ‘乙’처럼 되며, 그 아래에 ‘L’을 이어 쓰는 형태가 된다. 관북리 285호목간의 ‘記’의 우측 상단 역시 마찬가지로의 필획을 하고 있다. 필자는 과문한 탓인지 이처럼言변과 그 우측 상단에 이러한 필획을 갖고 있는 글자로 ‘記’ 외에는 달리 떠오르는 것이 없다. 후자가 제기한 詔의 우측 상단 획은 이러한 방식으로 도저히 쓸 수 없다. 따라서 필자가 관북리 285호목간의 용도를 이 목간의 형태와 ‘兵与記’ 판독에 기초하여, 兵与記 장부에 매달려 있던 문서표지용 목간으로 이해한 견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37) 이경섭, 2007 앞의 논문, p.211.

38) 이용현, 2007 앞의 논문, p..267.

그런데 <285호목간>이 문서표지로 매달려있었던 兵与記 장부는 실제로 어떤 형태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역시 백제의 장부인 ‘支藥兒食米記’가 기록되어 있었던 능산리 사면목간이 일차적으로 주목된다. 이 목간으로 볼 때, 비록 중간 정리용이지만 백제는 ‘多面木簡’을 활용해 帳簿를 정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또 다면목간 여러 개를 연결하면 기록할 양도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漢대에 『急就編』을 기록한 다면목간은 상단에 일련번호를 쓰고, 구멍을 뚫어 서로 연결하였고,³⁹⁾ 신라의 경우지만 월성해자목간(6~7세기)에도 사면목간 여러 개를 셋트로 하는 帳簿의 일부가 발굴되었다.⁴⁰⁾ 이러한 사례로 볼 때, 백제에서도 다면목간 여러 개를 묶어 장부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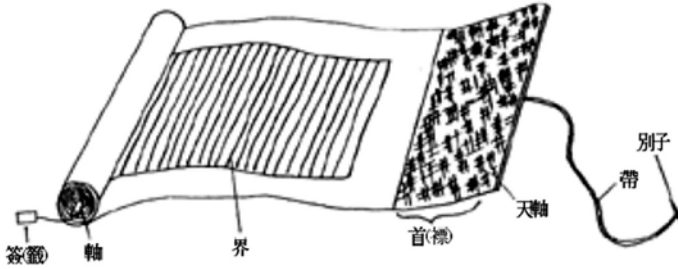
그러나 285번 목간의 목서로 볼 때, 兵与記가 2월에서 11월에 이르는 상당한 기록량을 가진 장부로 이해되고, 또 兵与記 외에 목간의 파손된 하단부에 또 다른 장부명칭이 기록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면목간은 형태상 이러한 장부들을 최종 정리하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285번 목간은 매우 얇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사면목간과 같은 임시적인 중간메모의 표지부찰로 보기가 어렵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대일본의 경우 종이장부는 일반적으로 두루마리의 권축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제침축 또는 목침축의 방식으로 권축에 직접 기록해 표지로 삼았지만, <285호목간>과 같은 표지용 꼬리표목간을 종이문서류의 권축에 매단 사례도 확인된다. 나가오카교(長岡宮) 유적에서 출토된 ‘人物志三卷’이라 목서된 꼬리표목간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이지만, 현재 일본왕실 소유인 聖德太子的 『三經義疏』에 붙여진 牙籤을 비롯해, 東大寺의 正倉院에 소장된 經卷에 붙은 牌 등 여러 경로의 傳世品도 남아있다.

이처럼 권축의 끝에 ‘籤’ 혹은 ‘牌’라 불리는 작은 꼬리표를 결합시

39) 大庭脩編著, 앞의 책, pp.32~33.

40) 윤선태, 2005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56, p.130.



〈그림 10〉 권축문서의 각 부분 명칭

켜(그림10 참조), 거기에 장부나, 典籍의 명칭, 卷數 등을 표시하는 방법은 목간을 매우 공들여 제작하거나, 값비싼 材質로 꼬리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권축문서의 표지용으로는 가장 상위의 양식으로 분류되고 있다.⁴¹⁾

<관북리285호목간>도 두께가 2mm에 불과하고, 매우 공들여 만든 장부의 표지라는 점에서, 이것이 매달려있었던 병여기 등은 권축문서(卷子本) 형태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추론이 허락된다면, 백제가 사비시기에 관청의 장부들을 권축문서에 표지용 꼬리표목간을 매다는 형태로 제작해 사용하였음을 알려준다.

木簡의 精製化가 확연하게 돋보이는 이러한 백제의 문서표지용 꼬리표목간은 백제 문서행정시스템의 성숙도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왜냐하면 문서행정의 전반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러한 미시적 부분에까지 정제화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隋書』百濟傳에 백제 관인들이 “행정실무에 능숙하다(能吏事)”고 특기되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며, 이 꼬리표목간 하나가 그것을 훌륭히 증명해주고 있다.

41) 高島英之, 2004 『題籤軸』, 『文字と古代日本』1, 吉川弘文館, pp.344~346.

IV. 문서의 폐기

국가의 공문서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일정기간 보존되기도 하며, 오용을 막기 위해 즉시 폐기되기도 한다. 문서의 보존과 관련하여 중국の場合 景龍 2년(708)의 勅에 의하면, ‘여러 州縣의 戶籍, 手實, 計帳은 마땅히 5比를 보존하여야 하며, 省籍은 9比를 보존해야 하는데, 오래된 것부터 차례로 없애나간다’고 되어 있다.⁴²⁾ 여기의 5비는 앞서 작성된 5회분의 문서를 의미한다. 고대일본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여 호적의 경우는 6년마다 작성하여 5比, 즉 30년을 보존하였고, 매년 작성한 계장의 경우 6년을 보존하였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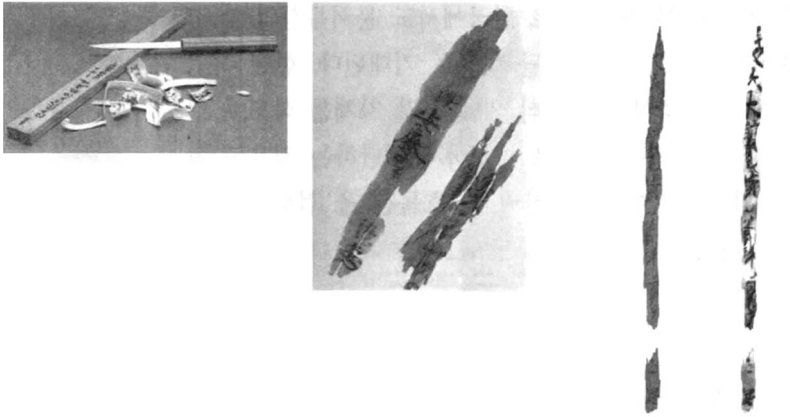
백제의 문서보존과 폐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전무하지만, 이웃한 신라에서 「촌락문서」(695년)를 3년마다 작성하고, 이후 追記도 하고, 용도가 다한 뒤 폐기해 經帙로 재활용하였던 점에 일차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⁴⁾ <궁남지 315호목간>으로 볼 때, 호적을 생산했음이 분명한 사비기의 백제에서도 호적 문서의 생산 간격과 보존기간 등이 율령으로 정해져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호적이나 계장과 같은 수취문서는 새로운 문서와의 비교나 검증 을 위해 지난 과거의 문서들이 반드시 보존되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편 백제의 문서 폐기방식은 목간자료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서목간은 誤用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목간에 대한 일차적인 폐기방식은 목간을 태우거나, 목간의 목서를 削刀로 깎아내는 방식이 있다.

42) “諸州縣籍·手實·計帳, 當留五比, 省籍留九比, 其遠年依次除” (『唐會要』 권85, 籍帳).

43) 宮本敦, 1971 『戶籍·計帳』, 『古代の日本(9)－研究資料－』, 角川書店, p.259.

44) 윤선태, 2000 『신라 통일기 왕실의 촌락 지배－신라 고문서와 목간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그림 11〉 목간부스러기의 재현(좌), 고대일본의 목간부스러기(중),
능산리사지 출토 목간부스러기와 그 적외선사진(우)

목간은 삭도로 목서를 깎아내 정정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 써놓은 목서를 삭도로 깎아내면, 문자가 있는 ‘목간부스러기’가 발생된다.⁴⁵⁾ 이 목간부스러기는 비록 원래의 목간에서 분리 파편화된 것이지만, 역시 귀중한 문자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 일본학계의 목간 출토 점수는 30만점을 상회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목간부스러기’들이다.⁴⁶⁾ 그런데 고대일본의 경우 꼬리표목간은 재생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하며, 문서목간의 경우 문서의 誤用을 막기 위해, 삭도로 목서를 깎아내고 재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목간부스러기는 주로 문서목간의 목서를 깎아낸 것이 많다.⁴⁷⁾

한국에서는 현재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유일하게 ‘목간부스러기’가 여러 점 출토된 바 있다. 일반에 공개된 것은 글자를 연습한 습서목간의 목서를 깎아낸 부스러기로 추정된다(그림11 참조). 고대일본의 사례

45) 중국학계에서는 이 부스러기를 ‘폐(柿)’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삭설(削屑)’이라고 한다. 필자는 이를 ‘목간부스러기’라고 명명해보았다.

46)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이 목간부스러기 자체에 대한 하위의 형식분류가 시도되고 있다(山下信一郎, 2004 『削屑』, 『文字と古代日本(1)』, 吉川弘文館).

47) 岸俊男, 1978 『木簡』, 『日本古文書學講座(2)－古代編(1)』, 雄山閣, pp.256~261.

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한국에서도 문서목간의 ‘목간 부스러기’가 많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목간의 목서를 깎아내는 방식 외에 목간 자체를 삭도로 두 쪽 혹은 세 쪽 이상으로 일정하게 절단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우선 아래 <능산리 296호목간>을 검토하여 보도록 하자.

<능산리 296호목간>

- 三月十二日梨田三□之□滕□□滕□□□
- 广清青青用□□用□□□□

이 목간은 상하단은 파손되지 않았지만, 좌측면과 우측면에 의도적으로 목간을 잘라낸 폐기흔적이 뚜렷이 확인된다. 이 목간은 細長形으로 길이가 27.3cm인데, 능산리목간 중에는 사면목간 다음으로 장대하다.

이 목간은 목서상태로 볼 때, 애초 “三月十二日梨田三” 등이 기록된 장부용 문서목간이었는데, 용도가 다한 후 하단부의 목서를 삭도로 깎아낸 뒤 습서목간으로 재활용하고 좌·우측면을 잘라낸 뒤 폐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2> 참조). 장부 기록부분과 습서 기록부분이 異筆인 것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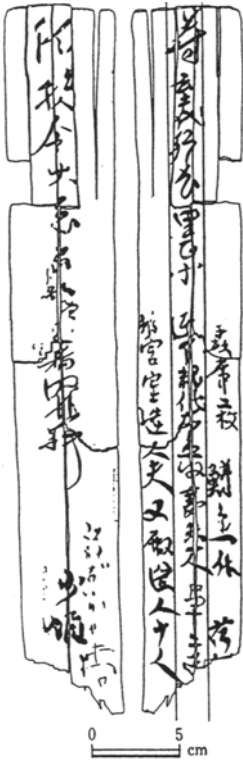
한편 <능산리 303호목간>에도 남아있는 목흔으로 볼 때, 세로로 목간의 좌·우측면을 의도적으로 쪼개버린 <296호목간>과 동일한 방식의 폐기행정이 확인된다.

<능산리 303번 목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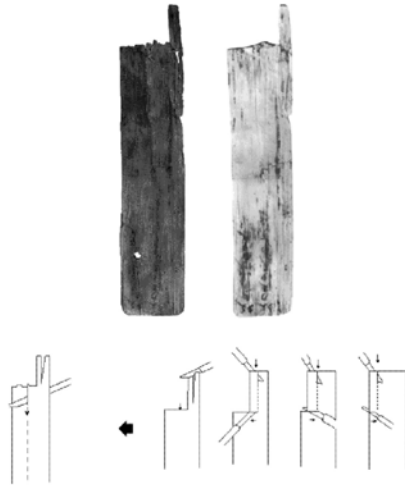
- x □□六日□□□□ 竹山六 x
- 四



<그림 12>
능산리
296호



〈그림 13〉 古代日本 郡符木簡



〈그림 14〉 관북리 283호목간과 고대일본의 목간떼기행정 비교

위 목간은 그러한 떼기행정으로 인해 판독이 어려운 글자가 많지만, 묵서내용으로 보아 앞서 검토한 <296호목간>과 거의 비슷한 용도의 장부용 문서목간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처럼 목간 자체를 삭도로 두 쪽 혹은 세 쪽 이상으로 절단하는 경우가 고대일본의 郡符木簡에서도 똑같이 확인된다는 점이 주목된다(〈그림 13〉 참조).⁴⁸⁾

더욱이 다음 <관북리 283호목간>처럼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고대일본의 문서목간 廢棄行程과 동일한 목간도 확인된다. <그림 14>의 아래는 고대일본의 목간 떼기행정을 도해한 것이다. 우선 삭도로 목간의 끝부분을 세로로 자르고, 다시 가로로 칼을 넣어 차례로 조각조각 부러뜨리는 방식으로 떼기하고 있다.⁴⁹⁾ 그런데 <관북리 283호목간>의 현존

48) 平川南, 2000 『日本古代木簡 研究の 現狀과 新視點』, 『한국고대사연구』19, p.127.

49) <그림 13>의 아래 부분은 平川南, 위의 논문, p.130 도2를 인용한 것이다.

상태가 이러한 고대일본의 목간 폐기행정과 매우 유사하다.⁵⁰⁾ 이는 백제멸망 후 백제 관인층의 상당수가 일본으로 망명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으로 백제의 문서생산과 폐기방식 등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또한 백제에 문서의 오용을 막기 위해 문서목간을 일정한 방식으로 폐기하는 정형화된 폐기행정이 관인사회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고대사회에서 문자의 최대 사용자는 국가였다. 이로 인해 현재 발굴되는 백제목간의 거의 대부분은 문서나 장부와 같은 국가기록물이다. 본고에서는 백제의 문서목간과 문서표지용 꼬리표목간을 분석하여, 문서의 생산, 보관, 폐기행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해보았다.

우선 2장에서는 <능산리 사면목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백제의 문서 생산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 사면목간을 통해 당시 백제에서는 최종 장부를 정리하기에 앞서 사면목간을 중간 정이용 메모장으로 사용하였고, 그 메모의 기능이 다한 뒤, 예를 들어 최종 장부에 메모를 옮겨 정리한 뒤, 기존의 목서를 깎아내고 다시 또 다른 내용의 중간 정이용 메모장으로 여러 차례 재활용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관청의 결산보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出納에 관한 일상적인 메모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데, 이 경우 당시에는 종이 귀했기 때문에 목간이 가장 효율적인 서사재료로 애용되었다. 한편 이러한 목간에 메모된 기록을 중간정리하고 또 최종 종이문서에 종합하기 위해 목간에 특별히 日附를 기록해 날짜별로 정리, 보관하였다.

50) 이러한 입장은 이미 이용현, 1999 앞의 논문, p.342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어 3장에서는 관북리 문서표지용 꼬리표목간을 활용하여 문서의 최종 정리와 보관 방법을 검토하여 보았다. 관청에서는 방대한 양의 문서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들을 분류·정리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卷軸을 이용해 말아놓는 두루마리 종이문서의 경우, 그 문서의 제목을 권축 자체에 기록하여 문서의 標識로 삼았는데, 크게 題簽軸과 木簽軸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백제에서는 이보다 더욱 세련된 꼬리표목간을 문서표지용으로 활용한 것도 확인된다. <관북리 285호목간>은 표지용 꼬리표목간인 중국의 榻과 형태가 유사하고, ‘兵与記’라는 장부명칭이 묵서되어 있다는 점에서, ‘兵与記’라는 장부의 표지용 꼬리표목간이었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兵与記’는 종이두루마리(卷子本) 형태의 권축문서였다고 생각된다.

목간의 精製化가 확연하게 돋보이는 이러한 백제의 장부표지용 목간은 백제 문서행정시스템의 성숙도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왜냐하면 문서행정의 전반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러한 미시적 부분에까지 정제화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隋書』百濟傳에 백제 관인들이 “행정실무에 능숙하다(能吏事)”고 특기되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며, 이 꼬리표목간 하나가 그것을 훌륭히 증명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문서의 보존과 폐기방식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백제의 문서보존과 폐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전무하지만, 백제 西部戶籍을 발췌한 궁남지목간으로 볼 때, 사비시기 백제에서도 호적 문서의 생산 간격과 보존기간 등이 율령으로 정해져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문서목간의 가장 손쉬운 폐기방식은 태우거나 목간의 묵서를 削刀로 깎아내는 방법이 있다. 백제목간에서는 이 외에도 목간 자체를 삭도로 두 쪽 혹은 세 쪽 이상으로 절단하는 폐기방식이 확인된다. 이는 고대 일본의 郡符木簡에서도 똑같이 확인된다. 특히 <관북리 283호목간>처럼 목간의 상단부를 조금씩 차례차례 푹푹 조각내 부러뜨리는, 아주 미세

한 부분까지도 고대일본의 문서목간 廢棄行程과 동일한 목간이 발굴되기도 하였다. 이는 백제멸망 후 백제 관인층의 상당수가 일본으로 망명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으로 백제의 문서생산과 폐기방식 등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또한 백제에 문서의 오용을 막기 위해 문서목간을 일정한 방식으로 폐기하는 정형화된 폐기행정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투고일 : 2007. 11. 29 심사개시일 : 2007. 11. 30 심사완료일 : 2007. 12. 9

참고문헌

- 高島英之, 2004 『題簽軸』 『文字と古代日本』1, 吉川弘文館.
- 宮本救, 1971 『戶籍·計帳』 『古代の日本(9)－研究資料－』, 角川書店.
- 近藤浩一, 2004 『扶餘 陵山里 羅城築造 木簡의 研究』 『百濟研究』39.
- 金在弘, 2001 『부여 궁남지유적 출토 목간과 그 의의』 『궁남지Ⅱ』,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김영심, 2005 『백제 5방제 하의 수취체제』 『역사학보』185.
- 大庭脩 編著, 1998 『木簡－古代からのメセージ』, 大修館書店.
- 東野治之, 2001 『木簡으로 본 韓日 古代文化』(충남대 백제학교육연구단 제5회 해외전문가 초청강좌 발표요지문).
- 山下信一郎, 2004 『削屑』 『文字と古代日本(1)』, 吉川弘文館.
- 岸俊男, 1978 『木簡』 『日本古文書學講座(2)－古代編(1)』, 雄山閣.
- 宇野雪村, 1989 『木簡の書』, 同朋舎.
- 劉國鈞, 2004 『中國古代 書籍制度의 發展』 『民族文化』27, 민족문화추진회.
- 윤선태, 2007 『목간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고대사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 尹善泰, 2007b 『木簡からみた百濟泗泚都城の内と外』 『韓國出土木簡の世界』, 雄山閣.
- 윤선태, 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이야기』, 주류성.
- 이경섭, 2007 『함안 성산산성 출토 題簽軸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서표지목간』 『역사와 현실』65.
- 이병호, 2007 『부여 능산리 출토 목간의 성격』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李鎔賢, 1999 『부여 궁남지 출토 목간의 연대와 성격』 『궁남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이용현, 2007 『목간』 『백제의 문화와 생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이관섭·윤선태, 2007 『부여 쌍북리 현내들 출토 백제목간』 『신출토 목간의 향연』(한국목간학회 제2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日本國立歴史民俗博物館, 2002 『文字のある風景－金印から正倉院文書まで』, 朝日新聞社.
- 平川南, 2000 『日本古代木簡 研究의 現狀과 新視點』 『한국고대사연구』19.

Abstract

The Administrative Affairs by Wooden Documents in Paekche Kingdom

Yoon, Seon-tae

This research aims to shed light on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affairs by Wooden Documents of Paekche kingdom.

I first reviewed the creation of documents with a wooden tablet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record(文書木簡), that has a lot of pages(‘多面’), which excavated at the old temple—ruins in Nengsanri, Booyeo. There Were many lines(‘多行’) upon it. These were written by the paekche’s governmental officer, and only brief memos about the administrative affairs. The paekche’s governmental offices would have had to use such wooden tablets equipped with many pages or lines to establish office registers or official documents.

Secondly, I examined the arrangement and classification of documents with a wooden tablet related to the title mark of document(文書標識用木簡). There were many kind of title mark of document. For example, scroll spindle on which written the title of document(題籤軸·木籤軸) was used under the administrative documentation. On the other hand, Wooden tablet No.285 seems to have been produced as a Wooden tag on which written the title of document(文書標識用楬).

In the future, the wooden tablets found from Booyeo should be put under comparative studies, and established as evidences of the paekche officer’s usage of letters and documents in their ordinary lives.

Key Words : Wooden tablets, Wooden tablet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record, Wooden tablet related to the title mark of document, Creation, Arrangement, and Destruction of Official documents.